

자동차 엔진룸 속에 있는 액체류를 점검하자

자동차가 안전하게 구동되기 위해서는 워셔액, 엔진오일 등 다양한 액체가 필요하다. 이 액체들은 불순물 제거, 윤활 기능 등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길이다. 초보운전자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자동차 속 액체들을 키즈현대(kids.hyundai.com)가 소개했다.

■ 엔진룸 열고 위치부터 체크

내 차 속 액체류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보닛을 열고 엔진룸을 살펴봐야 한다. 엔진룸에는 냉각수 보조탱크, 워셔액 탱크, 엔진오일 레벨게이지, 브레이크액 탱크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엔진오일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들은 탱크의 잔량량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액체류의 위치는 차종별로 다르므로 초보운전자라면 취급설명서를 통해 각각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자.

■ 엔진 과열 막아주는 '냉각수'

냉각수는 엔진을 최적의 온도로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냉각수가 부족할 경우, 엔진이 과열되어 자동차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냉각수의 양은 냉각수 보조탱크 레벨 게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냉각수 보조탱크를 측면에서 봤을 때 냉각수가 F와 L 사이에 있다면 정상이다. 만약 냉각수가 부족하다면 F를 초과하지 않게 주의하며 보충해 주어야 한다.

■ 브레이크 작동 필수 요소 '브레이크액'

브레이크액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압력을 만들어 낸다. 사실, 브레이크액은 급격히 소모되는 액체는 아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이 마모되고 주행거리가 축적되면 천천히 줄어든다.

브레이크액 탱크 안에 있는 잔량이 MIN과 MAX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브레이크액이 부족하다면 즉시 보충해야 한다. 이때 브레이크액이 차량의 도장에 묻으면 도장면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 보충한다.

■ 깨끗한 시야를 책임지는 '워셔액'

워셔액은 더러워진 앞 유리를 깨끗하



▲ 엔진룸 내 액체류 탱크의 위치는 차종마다 다르다. 사진=shutterstock

게 닦아주는 세정액이다. 단순히 자동차의 청결을 위해서 필요한 액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잔량을 눈으로 체크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채워 두는 것이 안전하다.

워셔액 투입구에는 'WASHER ONLY'라고 적혀 있다. 이 그리고 투입구를 연 후에 워셔액을 보충하면 된다. 일반 수도물, 혹은 일반 워셔액을 사용해도 되지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얼 수 있으므로 꼭 겨울용 워셔액을 사용해야 한다.

■ 엔진 부품의 마찰을 줄여주는 '엔진오일'

엔진오일은 엔진의 부품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생기는 마찰을 줄여준다. 또한 엔진 내부에서 생겨나는 불순물을 내보내기도 한다. 그래서 엔진오일을 자동차의 혈액이라고도 부른다.

엔진오일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를 평탄한 곳에 주차해야 한다.

그리고 엔진오일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엔진을 워밍업을 한 후에 시동을 끄고 약 5분 정도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 엔진오일 점검을 위한 준비는 끝이다.

엔진오일 점검 방법은 간단하다. 노란색 레벨게이지를 뽑아서 헝겊으로 닦은 후, 다시 레벨게이지를 꽂았다가 빼면 엔진오일 양을 확인할 수 있다. 오일의 양이 레벨게이지의 F와 L 사이에 있다면 정상이다. 만약 L 미만이라면 오일을 보충해야 하고, F를 넘어서 게이지 거의 끝까지 오일이 묻어 있다면 오일을 적당량 빼내야 한다.

브레이크액이나 냉각수는 그 양이 부족할 경우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온다. 하지만 냉각수나 워셔액은 엔진룸을 열어 확인하지 않으면 남은 양을 알 수 없다. 자동차 보닛을 열고 엔진룸에 있는 액체류를 자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과 자동차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 자동차 안전운행과 수명 연장을 위해 액체류를 자주 점검해 주는 것이 좋다. 사진=shutterstock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5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4년 현재 174.7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0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